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경상북도 의회소식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희망의 신축년(辛丑年)
도민과 함께하는 경북도의회는
행복한 경북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전진하겠습니다.



CONTENTS

VOL. 125

2020. WINTER



- 06 위원회 활동
- 14 5분 발언
- 21 도정질문
- 30 의정소식
- 35 포커스 온
- 50 처리 의안
- 61 당신께 묻습니다
- 76 의회 아카이브
- 81 의회 한토막
- 82 쉼터
- 84 우리 함께
- 85 의정 안내

경상북도 의회소식

발행처 경상북도의회

발행인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편집인 민인기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

발행일 2020년 12월

주 소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 화 054-880-5144

기획·디자인·사진·제작 ㈜스토리파크



경상북도 의회 홈페이지 접속 후 의회소식지 신청

구독신청 : council.gb.go.kr

※ 구독 취소 시 경상북도의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로 연락(054-880-5144)



희망의 신축년, 도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심한 경기 침체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방역수칙에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우리 3백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경북은 그 어느 때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수도권 집중화에 맞선 국가 균형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야 하며,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비롯한 경북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도의회에서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본예산 심사 등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세심한 의정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면밀한 예산심사를 통해 소중한 지방재정이 오롯이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약속한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만들기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2021년 희망의 신축년에는 도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북도의회 의장 **고우현**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고운 최치원

國有玄妙之道曰風流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風流)'라 한다.

設教之源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그 가르침을 베푼 근원은 '선사(仙史)'에 상세히 실려 있는데,
실로 삼교(三教)를 포함하여 중생을 교화한다.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들어와 집에서 효도하고 나가서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이다.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무위로 일을 처리하고 말없이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노자의 뜻이다.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악한 일은 하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다.



사진출처: 최치원 문학관

최치원 문학관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241

신라시대의 학자인 고운 최치원 선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까지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알려진 대문장가이다. 의성군 단촌면에 자리한 최치원 문학관은 선생의 문학을 기리고 그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다. 상설 전시실 및 기획 전시실에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고운차실'에서 여유로운 차 한잔을 즐긴 뒤 고운문학공원에서 사색을 즐겨도 좋다.

• 의회운영위원회 •

특별위원회 구성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6일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제 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등 4개 임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는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 구축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과 야욕에 대해 단호하고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구성하며, 신공항 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추어 연안 산업과 교통·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처리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도청 및 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 87개 기관에 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안희영 운영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구성된 임의특별위원회가 구성목적에 맞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후반기 임의특별위원회에 대한 도민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기획경제위원회 •

도정 주요현안사업 내실 있는 추진 당부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7개 기관과 도 본청 8개 실국 등에 대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기관에 서면질의를 요구해 받은 자료와 사업관계자, 언론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관·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날 선 지적, 합리적인 비판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배진석 위원장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출자출연기관·공기업의 방만·부실경영과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출자출연기관장의 역량을 의회가 검증하는 인사검증대상 확대를 집행부에 제안했으며, 올해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조례 제·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23일에는 위원회 소관 실국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12월 2일부터 4일까지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변화된 상황에 대응기 위한 민생중심 예산심사



김하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와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행사성·홍보성·연례 반복적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도민에게 절실한 민생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소관 실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11월 24일에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2일, 3일 양일간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4개 실국, 2개 직속기관, 9개 출연기관 등 총 15개소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축소, 취소 등 사업예산에 대한 감액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91억 9,238만원이 증액된 5조 1,384억 589만원을 최종 의결하였다. 또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당초 요구액 대비 21억 2,761만원을 감액하여, 2020년 대비 1,734억 5,487만원이 증액된 4조 2,815억 2,794만원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 문화환경위원회 •



현지확인·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까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눈에 띄어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에 걸쳐서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재)문화엑스포, 산림환경연구원을 현지 방문해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관광공사와 엑스포에서는 비대면 사회에 맞는 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등 선도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원 조성을 주문했습니다.

11월 9일부터 18일까지는 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단순 지적의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감사활동을 펼쳐 행정사



무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12월 2일, 3일 양일간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대내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관례적·반복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들의 필요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항병직 위원장은 “비대면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도민의 삶이 급변하고 있어 행정업무 또한 유연하고 신속히 새로운 흐름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성과를 창출해 도민의 일상에 힘을 보태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농수산위원회 •

농어촌의 위기, 부족한 예산을 넘치는 행동으로 극복할 것

농수산위원회는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11개 기관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농수산위원회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도정의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1조 1,640억 8,604만원으로 농업기술원 757억 5,722만원, 해양수산국 1,655억 9,456만원, 농축산유통국 9,227억 3,426만원이며 금년대비 18% 정도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도 재정여건의 악화로 인해 도 자체사업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장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재 농어촌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며 총평하고, “경상북

도의회와 경상북도는 하나의 마음으로 합심해 농어촌에 부족한 예산을 넘치는 행동으로 메우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 건설소방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안 심사 마무리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7일 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일 년 동안 추진된 도정전반에 대한 성과와 미진한 부분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펼쳤습니다. 특히 일선 소방서의 청사 노후화를 비롯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현장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장비 점검 상태 및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확인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24일 양일에 걸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 하고 경북

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임위원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도내 건설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의정활동의 마침표를 찍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추경예산안 심사와 간담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친 건설소방위원들은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교육위원회 •

경북교육청 2021년 본 예산안 심사

교육위원회는 제3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의결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3.7%, 1,704억원이 감소한 4조 4,057억 원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한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조현일 교육위원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영으로 미래교육환경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선 11월 10부터 19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6개 직속기관과 12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이어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조 4,899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 9,600억원보다 5,299억원(4.8%)이 증가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한 시기로 자원 배분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10조 6,54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조 193억원(10.6%) 증가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4조 4,057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04억원(Δ3.7%)이 감소하였습니다.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 내년도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대회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단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등 도민들이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재정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회

직접 들어보는 5분 자유발언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0.16.)



배진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경주)

경주의 도심 최고고도지구 변경 촉구

경주 도심 성건동에 위치한 보우주택과 성건주공아파트 및 주공연립아파트는 각각 1979년, 1980년에 건립되어 현재 748세대 2000여 명의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40년이 넘은 아파트는 지난 2016년 강도 5.8 경주지진 당시의 균열이 그대로 남아 있어, 땀땀 보수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경주의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축 허용고도는 보우주택이 20m, 성건주공아파트가 25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문화도시, 국립공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경주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었습니다. 경주시민의 요구사항은 역사와 문화를 훼손하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20m, 25m로 묶여 있어 사업성이 없는 최고고도를 36m로 완화해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경주는 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의 삶을 공유하고 복원과 재창조를 통해 미래의 비전을 설계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주시민들의 재산권과 거주권, 행복추구권과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또한 지켜져야 합니다. 다시한번 경주 도심 최고고도지구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0.16.)



김대일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안동)

**점촌-신도청-안동 단선철도건설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도내 현안철도망 사업 중, 점촌~신도청~안동 간 54.4km 구간의 단선철도 건설사업은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점촌~안동선은 신도청을 지나는 노선이며, 경북 북부지방에서 관광자원이 가장 풍부하고 인구도 가장 많은 안동을 연결하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청신도시의 경우 도로망이 불편하고 철도가 없어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더욱이 점촌~신도청~안동 구간은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만큼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검토를 넘어 반드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점촌~안동선이 확정된다면 통합신공항에서 신도청까지 철도를 연결하자는 계획도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즉 이곳 신도청이 서울수서까지도 직통으로, 그리고 신공항과 대구까지도 열차로 연결되어 행정뿐만 아니라 교통인프라에서도 경북의 중심으로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점촌~신도청~안동, 나아가 신도청~통합신공항까지의 철도망 구축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0.16.)



박판수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김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지난 10년간 경북소방의 인력은 2500여 명에서 510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원되었고, 예산은 1600여억 원에서 4600여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장비는 629대에서 932대로 48% 이상 보강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괄목할 만큼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외형적 성장보다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적 측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이 겪는 극심한 외상 사건 노출 경험이 연평균 7.7회에 달하고 28.3%가 알코올장애를, 23.1%가 수면장애를, 4.5%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소방관도 10.7%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소방관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의 확대·설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현재 도내 심신안정실 설치율이 15.8%로 전국 평균 51.8%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수건강지원비도 지난해 25만 원으로 증액했지만 여전히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심신안정실을 100% 설치, 상당 전문인력 채용, 특수건강지원비 확대에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0.16.)

**임무석 의원**

(농수산위원회, 영주)

영주댐 방류**철회 촉구**

영주댐은 지난 2009년도 내성천 수질개선, 홍수피해 경감, 각종 용수공급 및 수력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한 다목적댐으로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에 1조 1030억 원을 들여 건설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이미 댐을 완성하여 놓고도 전체 사업을 준공하지 못한 상태로 3년여 동안 방치하다가 2019년 9월에 이르러서야 담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환경부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고 대표성도 없는 영주댐협의체의 결정만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방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댐 건설계획에 발맞춰, 오토캠핑장, 용마루공원, 전통문화체험단지, 복합어브벤처타워, 스포츠컴플렉스 등이 조성되어 지역관광이 점차 본궤도에 오르는 시점에, 방류 결정을 내려 이제까지 투입된 1747억 원의 사업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댐의 방류 여부는 담수를 통한 안정성 평가와 수질 및 생태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영주댐 방류 중지와 조기준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1.06.)

**이철구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포항)

포항 수성사격장**폐쇄 촉구**

1965년에 수성사격장이 마을에서 불과 1km 인근에 들어선 이후 포항 장기면민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각종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는 물론이고, 불발탄과 유탄 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통증과 신경불안 증세, 새끼를 밴 소나 돼지들의 원인 모를 유산과 양식어류 폐사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난해 4월부터 이곳 수성사격장에서 주한미군 공격용 헬기인 아파치의 사격훈련까지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헬기 사격훈련으로 주민불편이 야기될 것이 명확했음에도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포항시민들은 국방과 안보를 위해 60여 년간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또한 인재로 판명 난 포항 촉발지진 피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주민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 차원에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포항 수성사격장의 폐쇄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1.06.)



임미애 의원
(농수산위원회, 의성)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신설 및 농민등록제 시행 촉구

경북은 전국에서 농업인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전국 농가 수의 17% 가량을 차지합니다. 경북농민의 숫자가 약 37만 이고, 이중 18만 8127명이 여성농민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농어업인의 정년이 만 70세로 상향되어, 만 65세 농어업인의 자동차사고 사망보험금도 증액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북의 전체 여성농민 중 3.1%만이 농업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어, 나머지는 해당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도내 여성농민 중에 3만 330명, 16%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최소한의 노후보장마저 힘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처럼 여성농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열악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사님께 두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어업인을 단체의 구성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개개인을 농업정책의 중심 축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북에서만이라도 농민등록 제를 시행하여, 농가 단위로 운영되는 농업행정을 농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여성농업인도 소외와 배제 없이 동등한 기회와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1.06.)



김상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포항)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9월 21일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는 통합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공론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찬성측, 반대측 구성비율이 동등해야 하고, 경북 북부권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과 여러 직업군 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독선과 경직 된 자세가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정통합이 필요하고 이것만이 경북을 발전시키는 길이라 생각한다면 공 론화장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담아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급박한 추진은 결국 도민 간의 분쟁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른 공론화는 충분한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청신도시는 여전히 조성 중이고 대구시청 이전 계획은 이제 막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극심한 진통 끝에 확정되었습니다. 대구경북의 행정체제를 통합하는 문제는 단체장의 일방적인 하향식 접근에서 성급하게 추진될 사안이 아닙니다. 도민을 위해 경북이 먼저 풀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 적해 있다는 것을 도지사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1.06.)

**황병직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영주)

광역시도 국정감사 범위 개선 촉구

헌법 제61조는 국회의 국정 감사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에서는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로,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는 국가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고려할 때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에서 광역자치단체의 비서실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비서실 크기 변동 등 자치사무에 불과한 내용을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하여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법률 근거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여 중복 감사를 방지하고 지방자치권 및 지방의회의 자치권이 보장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요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11.23.)

**이재도 의원**

(농수산위원회, 포항)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중단 촉구

현재 포항시 오천읍 아파트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지하 20m, 지상 40m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을 증설한다고 합니다. 인접한 오천읍 주민들은 SRF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한 두 곳의 매립장까지 맞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의견은 무시한 채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는 포항지역 내 발생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공단 내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 톤당 5만 5000원이던 매립단가가 6년이 지난 2019년에는 20만 원으로 4배가 올라, 공단 내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기보다, 폐기물업체의 수익만 보장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의 산업폐기물 처리에 기여한다지만, 한 폐기물 업체의 2018년 폐기물 매립량 중 68%가 타지역 반입량이고 포항지역 폐기물 반입량은 3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피해를 입어 왔던 지역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포항시민과 도민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산업폐기물업체의 이익만 보장하는 매립장 증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증설과 확장이 아닌 신규 매립장 조성과 같은 근본적인 산업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11.23.)



이동업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포항)

환동해지역본부 역할과 기능 확대 촉구

도지사께서는 2017년 출마선언시 동해안에 도청 2청사를 건립해 부지사를 상주시켜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미래경북 발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경북발전의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환동해지역본부가 관할하는 지역은 포항, 경주를 비롯한 동해안 5개 시·군으로 이들 지역은 경북 총생산의 30.3%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자 핵심 지역입니다.

이에 환동해지역본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경북 동부권과 남부권지역 전체를 관할하도록 하여, 동남권지역의 균형발전과 환동해시대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2급 본부장 체제에서 도지사께서 약속하신, 부지사급으로 격상하여 독립된 예산을 확보하고 동남권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업무의 범위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가 경북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전초기지가 되도록 조직과 기능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2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12.14.)



권광택 의원
(교육위원회, 안동)

안동 원도심과 신도청을 잇는 교통인프라 확충 촉구

현재 안동 원도심과 신도청을 잇는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동 원도심과 신도청을 잇는 가장 중요한 도로는 국도 34호선입니다. 송야사거리 일대는 도청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량은 벌써 포화상태로 도로확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둘째,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지역균형발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동 원도심과 신도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간의 소통과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교통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북 북부지역의 주력 산업인 바이오·생명·관광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교통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에 촉구합니다. 첫째, 국도 34호선 신도청~안동 국도확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둘째, 지역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 노선승격 등 연계 도로망 확충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십시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2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12.14.)

**김준열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구미)

공동주택과 신설 및 공항교통국 조직개편 제안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 주거 패러다임은 기존 단독주택 중심에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더욱이 경상북도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의존율이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밀한 지원정책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 또한 공동주택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 공동주택과의 소속한 신설을 통해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필요하다면, 건설도시국 신도시조성과를 공동주택과로 개편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항은 교통 접근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합신공항과 울릉공항의 성패가 도로와 교통 등 광역 교통망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현재 일자리경제실과 건설도시국에 산재해 있는 교통·도로 분야와 통합신공항추진단을 가칭 공항교통국으로 통합·개편하여, 광역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신공항과 울릉공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과 신설과 공항교통국 조직개편을 도지사께 촉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319회 1차 본회의 10. 6.



T

Thema

대구경북 행정통합, 3대문화권 사업 추진, 안동 강남지역 중학교 신설 및 이전 재배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Question

Q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이전에 먼저, 도지사께서 내세우신 공약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도청 이전계획 초기에 목표했던 유관기관유치 및 인구유입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데, 도청신도시와 경북북부권 발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전략은 무엇입니까. 셋째, 통합계획에 따르면 2022년 7월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시간 안에 행정통합이 가능한지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타 시도·시군 통합사례를 보면 부정적 효과가 많은데, 행정통합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향후 3대문화권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인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도가 향후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각 시·군의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안동 강남지역 중학교 신설 및 이전 재배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분포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지은 지 40년이 넘는 학교를 현재위치에 개축하는 것, 안동시 강북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중 하나를 강남동 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것, 중·고 병설 학교 설립에 관한 것 등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19회 1차 본회의 10. 6.

박채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비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T

Thema

공유재산 관리, 예비비 지출관련, 지방의료원 설립, 장기존속 기업 폐업대책, 청년기업
인에 대한 현황조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Question

Q

먼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내국세, 지방교육세가 감소하고, 무상교육으로 자
체수입도 감소되는 상황에서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합니다.

최근 지출된 예비비 중 31억이 학교용지 취득에 쓰였습니다.
해당 용지취득 관련해서 1심, 2심 승소 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
었던 건으로, 충분히 예측해 추경에서 예산반영이 가능했으리
라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그 목적에 맞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쓰이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후 집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부권 지방의료원 설립에 대한 도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10년 이상 장기 존속해 온 기업체의 폐업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기업인들을 위한 지
원사업이 실·과별로 모두 흩어져 있고, 청년기업인들의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
원을 위한 통계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9회 1차 본회의 10. 6.



T

Thema

지방교부세 페널티 증가원인, 공유재산 관리, 수질오염 관리, 그린에너지산단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Question

Q

경북의 지방재정 운용 상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절감부분 페널티가 2019년 17억에서 2020년 47억으로 무려 30억이 늘었습니다. 이는 타 도에 비해 민간위탁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도는 공유재산이 3조, 재무제표는 24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할 수는 없지만, 타 도는 액수가 비슷한데 우리 경북만 8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는 재무제표에는 등재되었지만, 공유재산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경북도의 환경정책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관련해서 우리 경북의 핵심 이슈 중의 하나가 영풍석포제련소입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민들의 환경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에는 구미·포항 등지에 많은 산단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그린에너지산단을 조성해야 향후 대기업과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상주 청리마공단지에 적용하는 것도 청정한 지역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0회 3차 본회의 11. 30.



T

Thema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 코로나 19 이후 경북교육청의 대응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Question

Q

퇴비부숙도 검사 전면 시행에 앞서 가축분뇨 퇴비화·자원화 대책,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과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처리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대응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시행에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 단위의 단기적 일자리 문제, 실수요자인 노인들의 필요성과 실제 사업 간 불부합, 시군에 재정 부담 가중, 사업 수행기관 전문성 미비 등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및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의 발생, 학생과 교사간·학생 서로 간의 유대감 상실, 방과 후 돌봄 문제, 신입생의 학교 적응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대응방안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 하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관리 대책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회 3차 본회의 11. 30.



T

Thema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 새마을운동 단체 활성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선방안, 남부권 식품산업단지 조성, 청도소싸움경기장 지원 대책, 미집행 교육예산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Question

Q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경상북도 조례는 총 610건이며, 이 중 20.16%인 123건만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됐습니다. 조례 10건 중 8건은 조례 시행규칙이 없는 실정으로, 이는 집행부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이어져,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강타할 때 새마을지도자들은 앞장서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나눔·봉사·배려의 21세기 새로운 새마을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새마을 봉사단체에 더 많은 지원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문화재별 특성과 지역여건 등에 맞게 재지정 필요성과 청도에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기내식 관련 식품 제조·가공기업 조성,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청도소싸움경기장 피해대책으로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 제도 도입 및 청도군의 레저세 경감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증가로 인해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 따라 미집행 교육예산을 경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에 활용하여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회 3차 본회의 11. 30.



T

Thema

관광거점도시 안동 육성 전략 및 안동역사부지 활용과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극복,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관련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Question

Q

먼저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안동) 육성을 위한 경북도의 전략과 안동역사 부지를 새로운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남부선 및 중앙선 이설로 인한 폐선 및 폐역에 대한 활용계획 및 통합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T/F팀을 구성 의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이 우려되지만 초기와는 달리 방역이 많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집단시설 등을 포함한 경북도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2020년 선택적 예방접종 실적부진 이유와 2021년도 선택

적예방접종 예산의 부실편성 이유, 사업을 병·의원 위탁으로 추진 이유, 마지막으로 사업 확대 및 예산 추가편성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대상학교 선정 시 교육복지사업 안정적 운영과 교육복지사의 효율적 배치에 대한 문제, 둘째, 교육복지사의 전보, 공립·사립 공무직 관련 인사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규정에 맞지 않은 공립·사립간 전보 시행 이유와 향후 문제해결 방향에 대한 문제, 셋째, 초등돌봄전담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돌봄문제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20회 4차 본회의 12. 1.



T

Thema

경북형 뉴딜사업 관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관련,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학력 격차 관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Question

Q

경북형 뉴딜 계획은 시군별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집적화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확대를 경북의 산업구조 재편,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북형 뉴딜의 세부과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추진시, 이전지 외 다른 시군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도내 균형 개발 사업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이 다시 추진된다면 통합

신공항 이전사업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통합신공항 이전을 통해 구미산단이 항공물류 수송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항공물류 확대에 대응해 기업유치와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공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통합신공항만의 종합적인 계획은 무엇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과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업 결손에 대응하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대책과 불법 개인과의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 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회 4차 본회의의 12. 01.



T

Thema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 대책, 청년정책 내실화 방안,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 정책, 독립운동기념관 사업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Question

Q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경북위원 상당수가 대구지역 및 대구 인근 지역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편중과 찬성위원 일색으로 채워진 공론화위원회는 이미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통합의 일정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 제시하는 전망들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밀어붙이기식 행정통합에 지사직까지 걸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신도시에 있는 2,072개의 점포 중 입점율은 42%에 불과합니다. 분양된 부지의 상당부분은 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북도청 신도시 안착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의 직접지원사업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도와 사업기관들이 서로 공유하여 정책자금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정책지원 이후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청년정책사업의 실효성 파악이 필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지역 문화예술인을 일정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예술인 의무할당제' 시행과 독립운동역사를 모티브로 하는 영화, 드라마 제작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320회 4차 본회의 12. 01.



T

Thema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 맑은누리파크 관련, 경북교육 사건사고 비위사실과 교육행정
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Question

Q

먼저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이전 5년차에 접어든 도청신도시가 어설픈 도시계획 탓에 출근시간 심각한 교통체증과 편의시설주변 불법주정차 등으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종합병원, 시외버스 터미널 부재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도 시급합니다. 그리고 신도시 내 1곳뿐인 중학교 신설문제, 대학교 유치 등 교육시설 확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주민들에게 운동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시설인 송평천의 오염대책과 활용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맑은누리파크는 하루에 510톤 규모, 도내 11개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준공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

설이 가동 10개월 중 절반인 5개월 가량이 멈춰섰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잦은 고장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관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늑장신고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비위사건 등 도교육청 교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제2의 라면형제 사건을 막기 위해 아동복지서비스를 연계강화 및 돌봄시설 공백 최소화 방안, 청소년 운동부족국가 세계 1위에 대한 체육수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소식



01 경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개최, 도정질문 및 안건처리

경북도의회는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제319회 임시회를 열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도정질문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섰다.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 수립과 각종 조례안 20건, 소관 실국별 출자·출연안을 포함하여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03 문화환경위원회, 영주댐 방류 원점 재검토 및 댐 운영 조기 정상화 촉구

문화환경위원회는 10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영주댐 담수를 전제로 댐 주변지역에 23개 사업, 총 1,747억 원 규모의 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농업용수 개발·공급 사업이 준공되거나 추진 중에 있음을 지적하고 영주댐 방류계획 및 시행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02 산업보안정책연구회, 최종 보고회 개최

산업보안정책연구회는 10월 15일 도의회에서 2020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인 '경북 산업보안실태 및 보안역량 육성 강화 방안'라는 주제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산업보안정책연구회에서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를 듣고, 회원 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04 원자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지난 10월 16일 열린 1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박차양 의원을 위원장, 김득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위원에는 김상헌 의원, 김영선 의원, 남용대 의원, 박용선 의원, 오세혁 의원, 이동업 의원, 조주홍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원자력대책특위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의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소식



05 지방소멸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지난 10월 16일 1차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임무석 의원, 부위원장에 임미애 의원을 선출하였다. 위원에는 김대일 의원, 김상조 의원, 나기보 의원, 박미경 의원, 방유봉 의원, 이선희 의원, 한창화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인구유출 문제를 도의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상북도로 건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06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10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후반기 위원회를 이끌어갈 박판수 위원장과 이재도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위원에는 권광택 의원, 박정현 의원, 박태춘 의원, 신호광 의원, 이철구 의원, 장경식 의원, 정영길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과 야욕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독도수호를 전담할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07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신공항이전지원 특별위원회는 홍정근 의원을 위원장, 김시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위원으로는 김수문 의원, 김진욱 의원, 박창석 의원, 윤창욱 의원, 이종열 의원, 정근수 의원, 정세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는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과 개항에 발맞춰 연관 산업 및 교통·관광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08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분권 실현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10월 20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자치법 개정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12월 9일 국회 본회의의 통과) 이번 방문에는 김한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함께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및 지방의정 협조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의정소식



09 고우현 의장,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은 고우현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11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6일에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회를 개최하여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일본정부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정부에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단호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10 2020년도 마지막 정례회 개최

경북도의회는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2021년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고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고우현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 중지를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통합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 등 지역 현안과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자"고 강조하였다.



12 대구사이버대학교와 상호교류 업무협약

경북도의회는 11월 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대구사이버대학교와 도의회와 대학의 상호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협약을 통해 대학은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도의회는 배움의 기회를 통해 의정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습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정소식



13 道·道 교육청과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업무 협약체결

경북도의회는 11월 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 전면 무상급식 조기 실시에 따른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969교, 260,831명의 학생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된다.



14 재난구호금 1천만 원 전달식 가져

경북도의회는 제320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가 지원하는 재난구호금 1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도의회는 지난해 태풍 미탁에 따른 구호금 1천만 원에 이어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구호금품 2천만 원을 비롯하여 이번 지원금까지 최근 1년간 협의회로부터 총 4천만 원의 재난구호금 지원을 이끌어내었다.



15 김해신공항 백지화 철회 촉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11월 17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추진 검증결과' 발표에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이번 결정이 과연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김해신공항을 당초 합의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6 경북형 귀농·귀촌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북형 귀농·귀촌 정책연구회는 11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북형 집단 귀농·귀촌모델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북형 집단 귀농·귀촌 모델 개발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의정소식



17 사용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촉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우현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18 도의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더더더 대응 강화

경북도의회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및 공직부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코로나 19 더더더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수준을 더욱 높여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의회 회의운영과 청사방역, 주요행사의 3대 분야에 걸쳐 '강화'와 '세밀화', '축소'를 핵심 키워드로 전략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19 교육공간혁신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 '교육공간혁신연구회'는 12월 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경북형 학교공간 혁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5월 7일에 열린 '교육공간혁신연구회'에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보고를 받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 신공항이전지원특위, 집행부로부터 신공항 추진상황 보고받아

경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신공항추진단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경과, 당면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는 신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신공항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전 대상지 선정 후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점검을 위해 개최되었다.

안동호 쇠제비갈매기의 꿈을 수호하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 민생당

박미경
의원

Q. 의원님이 추천하는 안동의 명소가 있으십니까?

A. 제가 하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후 생태문제에 특별히 더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자연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려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는 환경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더라고요. 고민을 하던 즈음, 안동호에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쇠제비갈매기가 정착해 새끼 갈매기를 부화시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인터뷰 지면을 빌어,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쇠제비갈매기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 안동호를 추천합니다.

Q. '안동호 쇠제비갈매기의 꿈' 공연이 갖는 의미

A. 올봄, 안동호에 바람을 쐬러 갔다가 쇠제비갈매기를 우연히 만났어요. 원래 갈매기는 바다에 사는 동물인데 강에 산다는 것이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그렇게 안동호와 쇠제비갈매기

에 관심을 갖게 됐고,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보존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이색 음악회를 열게 됐습니다. 인공섬에서 열리는 음악회로 챔버오케스트라와 첼로, 바이올린, 클라리넷 등의 협연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며, 쇠제비갈매기를 응원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와 TV 프로그램 송출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Q. 안동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지길 바라십니까?

A. 이번 음악회를 진행하면서, 안동호를 방문한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단순히 희귀종이 찾아왔기에 '경이롭다', '신비하다'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동의 친환경 관광 콘텐츠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안동은 세계문화유산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양질의 관광 콘텐츠를 접목하거나, 주변의 섬들과 연계해 수상 관광 등 새로운 관광 소재를 발굴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



청량산 푸른 봉우리에 도민의 마음을 그려내다

농수산위원회
봉화 / 국민의힘

박현국
의원

Q. 의원님께서 봉화에 추천하는 명소가 있으십니까?

A. 청량산은 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산세가 빼어나, 보는이들 누구나 감탄해 마지않습니다. 청량산 속에는 청량사라는 사찰이 있고, 우리나라 저명한 고승들이 수양을 위해 찾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택리지를 지은 이중환이 청량산을 두고 '사면에 석벽이 둘러 있고 모두 만길이나 높아서 험하고 기이한 것이 형용할 수가 없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전국을 누빈 이중환의 시선마저도 사로잡은 청량산의 빼어남을 지면상에 모두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역사적·문화적·종교적 가치를 모두 지니고 있는 청량산은 누구에게라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Q. 청량산하면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실까요?

A. 제가 처음 청량산과 인연을 맺게 된 시기가 고등학생 시절입니다. 당시 청량산 입구에는 다리가 없어서 쪽배를 타고 건너야만 했었는데, 당시는 그런 불편함마저도 설레고 즐거웠

습니다. 지금도 도정 활동에 지치거나 지역구를 찾을 때는 청량산을 찾게 됩니다. 지금은 접근성도 좋아지고, 편의시설도 확충되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지만, 청량산에서 처음 느꼈던 안정감과 따뜻함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가끔 그때의 친구들과 청량산을 찾을 때면 당시를 생각하며 회상에 잠기고는 합니다.

Q. 고향 봉화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정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A. 선출직은 누구나 자신을 뽑아주신 주민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크기 마련입니다. 재선에 성공하면서, 주민들이 다시 한번 주신 기회에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감사하게도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어온 의정활동을 도민분들이 조금이나마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청도의 미래 치유·놀이산업을 꿈꾸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 국민의힘

이선희
의원

Q. 의원님이 추천하는 청도의 명소가 있으십니까?

A. ‘청도’하면 삼한 시대부터 시작해 가야 문화권 중심으로 전승·발전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민속놀이 문화인 청도 소싸움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청도의 명소로 이 소싸움이 진행되는 청도소싸움경기장을 뽑고 싶습니다. 소싸움은 농경문화가 정착한 시대에 목동들이 망중한을 즐기기 위한 즉흥적 놀이에서 유래돼 마을 단위로 확대됐으며, 근대화 시기 지역 축제로 확장돼 우리나라 고유 전통 민속 축제로 발전한 가장 한국적이며 세계적인 놀이문화입니다. 마침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은 소의 해라서 더욱 의미가 있어 청도의 명소로 알리고 싶습니다.

Q. 청도소싸움경기장과 관련된 추억이 있으신가요?

A. 2002년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세계 유일무이 개폐형 청도소싸움경기장이 2007년 준공됐습니다. 당시 기획사를 운영하던 저는 대구에 이어 서울 사무실 오

픈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인들의 권유로 청도소싸움경기장 프로모션 사업 기획에 참여하게 되면서 고향 청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청도소싸움경기장은 제가 청도로 유턴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됐는데요, 현재 청도에 거주하면서 경북도의원으로 입성하게 되는 계기도 됐기에 소싸움경기장과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Q. 청도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실 예정인가요?

A. 청도는 도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청정한 자연자원이 많은데도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개발되고 이용되고 있어서 항상 아쉬웠습니다. 치유정원 마을이나 치유농장 마을 같은 테마형 마을들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정책적으로 지원된다면 청도는 치유라는 브랜드로 산업적 성장 못지않은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3월 「치유농장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치유농업이라는 새 직업도 내년 부터 생겨 날 예정이고 치유농장에 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어서 향후 청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사무실에서

굳은 의지를 다지던 등기산, 관광의 메카가 되다

기획경제위원회
울진 / 국민의힘

방유봉
의원

Q. 의원님이 추천하는 울진의 명소가 있으십니까?

A. 후포리에 있는 등기산은 예전부터 자주 방문하는 명소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등기산에서 후포의 앞바다를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답답함을 씻어내기에는 최적의 장소라 생각합니다. 1968년 등기산에서 처음 불을 밝힌 등대는 지금도 굳건하게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산 등대공원에는 신석기 유적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조성되어 관광명소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카이워크까지 조성되면서, 단연 후포를 대표할 만한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바다로 뻗어 있는 스카이워크를 걸으며 투명한 후포 앞바다를 감상해보기를 추천합니다.

Q. 등기산과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지요?

A. 어린시절에 친구들과 등기산에 올라, '나중에 커서 등기산에서 울릉도까지 다리를 놓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넓은 바다를 보면서 꿈을 키웠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산에서 탁트인 바다와 마주할 때면, 늘 세찬 바닷바람을 맞아야 했지만, 오히려 그런 바람마저도 제 스스로에게는 마음을 다잡는 힘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고민이 있거나 무언가를 결심할 때는 등기산을 자주 찾는 편입니다.

Q.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A. 세 번의 의정활동을 경험한 만큼 선배, 후배 의원들이 마음껏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저는 7대, 8대 의원을 거쳐 11대에 이르기 까지, 의정활동으로는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했다 자부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및 후배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에 대해 조언도 하면서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회 전체로는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동료의원들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



그림 같은 주왕산을 보며 청송의 미래를 생각하다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청송 / 국민의힘

신호광
의원

Q. 주왕산이 의원님께서는 남다른 곳인 것 같습니다.

A. 늘 주왕산에 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흘러가는 물과 주변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의정 활동을 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마다 이곳에 와서 심신수양을 하고 가죠. 주산지를 보며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도 다지고,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저만의 공간입니다.

Q. 의원님께서 특별히 추천해주고 싶은 명소가 있나요?

A. 주산지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에 오면 주산지 위로 물안개가 특수효과처럼 펼쳐집니다. 수면은 안 보이고 물안개만 보이는데 그때 벤치에 앉아 저수지를 보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듭니다. 왕버들 나무와 물안개가 이룬 조화를 바라보면 순간 현실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 녹아드는 경험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분들이라면 꼭 경험을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A. 의원직을 맡고 나서 늘 그래왔듯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군민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군민 여러분께 한 번 더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바라봤던 군민들의 모습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라본 모습, 지역구에서 벗어나 바라본 모습이 다 다릅니다. 군민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점도 다 다르구요. 이 고민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통적인 부분은 잘 정리하여 좀 더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경산자인단오제, 경산의 대표 문화가 되다

건설소방위원회
경산 / 국민의힘

오세혁
의원

Q. 경산자인단오제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경산자인단오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4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오제 행사를 하는 곳이 경산, 강릉, 그리고 전주에 있는데 규모 면에서는 경산보다는 강릉이 크지만, 제사를 지내러 가는 가장행렬이 이색적인 게 특징입니다. 여원무의 화관 높이가 3m나 되고, 춤사위도 독특해서 전국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건물을 품고 있는 자인 계정숲이라는 곳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기드문 평지에 가까운 자연 숲으로 활엽수림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Q. 의원님께 경산자인단오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A. 경산자인단오제는 처음 시작을 짐작키 힘들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어린시절 매년 단오제마다 친구들과 함께 즐거웠던 기억이 여전히 또렷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단오

제가 중단되는 아픔도 있었지만, 다시 지역민들이 뜻을 모아 지금까지 전승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지역민의 구심점이 되는 행사입니다. 제가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는 것도, 결국 이러한 지역민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알리고 보존해 나가는 것은, 책임을 넘어 당연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앞으로 바라시는 점 있으신가요?

A.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사업들이 연기되었고, 도민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나 축제도 취소되거나 상당 부분 축소되었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 1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관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희망의 빛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조금씩만 더 노력한다면 내년 어느 지점에서는 예전의 일상도 다시금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인단오제에 도민 모두를 기쁜 마음으로 초청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부조장터의 역사를 이어나가다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 국민의힘

이동업
의원

Q. 부조장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부조장터가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는 조선시대였습니다.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였어요. 농산물을 교역하는 해양 실크로드와 내륙 실크로드의 중심으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런 역사를 간직한 부조장터의 명성을 되찾아보자 라는 취지로 부조장터 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부조장터 축제를 진행하고, 부조장터 야외 물놀이 수영장을 개설하는 등, 부조장터의 문화도 널리 알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Q. 부조장터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부조장터 축제는 포항을 대표하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서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홍보할 수 있는 스토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부조장터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고,

포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조장터 공원 옆에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저녁에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도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부조장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했던 형산강 생태를 복원하고, 주변둔치도 정비하여 내륙에 있는 강 못지않게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도정활동 각오가 궁금합니다.

A.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산 확보도 쉽지 않지만, 300만 도민이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잘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포항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떠오른 달에 마음을 비추며 안동의 미래를 그리다

교육위원회
안동 / 국민의힘

권광택
의원

Q. 안동의 월영교가 관광명소라고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A. 월영교는 '달이 비치는 다리'라는 뜻으로, 이름처럼 달을 감상하기 알맞은 장소입니다. 다리 위로 탁 트인 하늘을 바라보며 달을 즐겨도 좋지만, 월영교 정자에 앉아 안동호에 비친 달을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과 동화된 듯한 기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강물에 비친 달과, 강 위로 떠다니는 형형색색의 문 보트가 매우 낭만적이라 연인들에게 큰 인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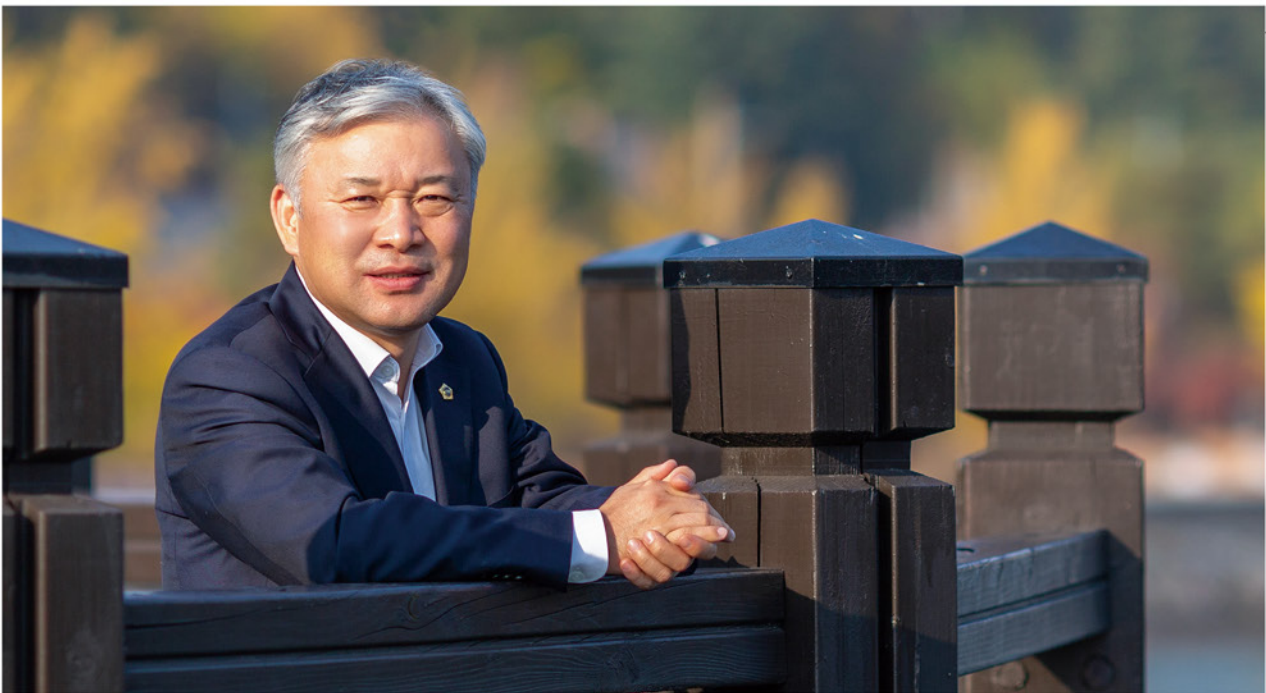
Q. 의원님도 이곳을 자주 찾으시나요?

A. 이곳에는 안동호반나들이길이라는 산책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안동댐 보조호수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은 물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산책로로 월영교에서 법흥교까지 이어져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호반나들이길과 가까워 자주 월영교까지 산책을 하곤 합니다. 의정을 생각하다보면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호반나들

이길을 걷고 월영교에서 달을 바라보며 머리를 식히곤 합니다. 저에게는 일상의 소중한 힐링 장소인 셈이지요.

**Q.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이신가요?**

A. 앞으로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본분대로 열심히 지역을 보살피면서 안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대구·경북통합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막 도청이 이전하고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서 나온 말이기에는, 신도시 주변은 물론 북부지역 시군에서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일수록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논의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들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특히 안동의 교육, 나아가 경상북도의 교육이 어느 지자체보다 으뜸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울 것입니다. 남은 의정기간동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여행

문화환경위원회
안동 / 국민의힘

김대일
의원

Q. 안동에 추천할만한 명소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A. 저는 안동의 명소로 삼태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동을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대로 의를 존중하고, 예를 중시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 원류를 따라가다보면 그 끝에 삼태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건이 대구 팔공산 전투에서 견훤한테 참패를 하고 안동으로 왔을 때 안동 김씨, 안동 장씨, 안동 권씨 세 명이 왕건을 도와서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충과 의로 왕건을 도와 고려건국에 공을 세운 세 사람을 섬기고자 위패를 모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Q.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지요?

A. 저는 안동 태생이고 안동 김씨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곳에 드나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보니 이곳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남다르게 느껴졌고, 반드시 보존되고 알려져야 될 안동의 유산이라 생각했습니다. 안동에서도 국회의원이거나 시장

등의 인물들이 배출되면 예의를 갖추러 삼태사를 가장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이 근방이 원도심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곳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쇠락했죠. 추억의 장소들이 점점 빛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Q. 안동 지역을 위해 어떻게 힘쓸 계획인가요?

A. 안동만 해도 삼태사를 비롯해,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 등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아요. 이런 곳들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 명소로 성장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원도심 뿐만 아니라 안동 전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을 방문해서 안동을 일컬어 '한국 속의 한국'이라고 했을 정도로 한국 정서가 가장 강한 곳이 바로 안동입니다. 접근성을 높이고 세계 속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서 안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



태백산 줄기를 이어받은 평온과 행복의 영주

농수산위원회
영주 / 국민의힘

임무석
의원

Q. 의원님이 추천하는 영주의 명소가 있으십니까?

A. 부석사는 우리나라 화엄종의 본찰로 초종인 의상 이래 그 전법 제자들에게 의해 지켜진 사찰입니다. 영주를 찾아주시는 많은 관광객이 꼭 방문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의원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취미로 사진 촬영을 30년 정도 했었습니다. 새벽에도 부석사를 올라가 부석사를 둘러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촬영하며 저 자신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언제 봐도 언제 가도 좋은 부석사에 여러분들도 꼭 한 번 방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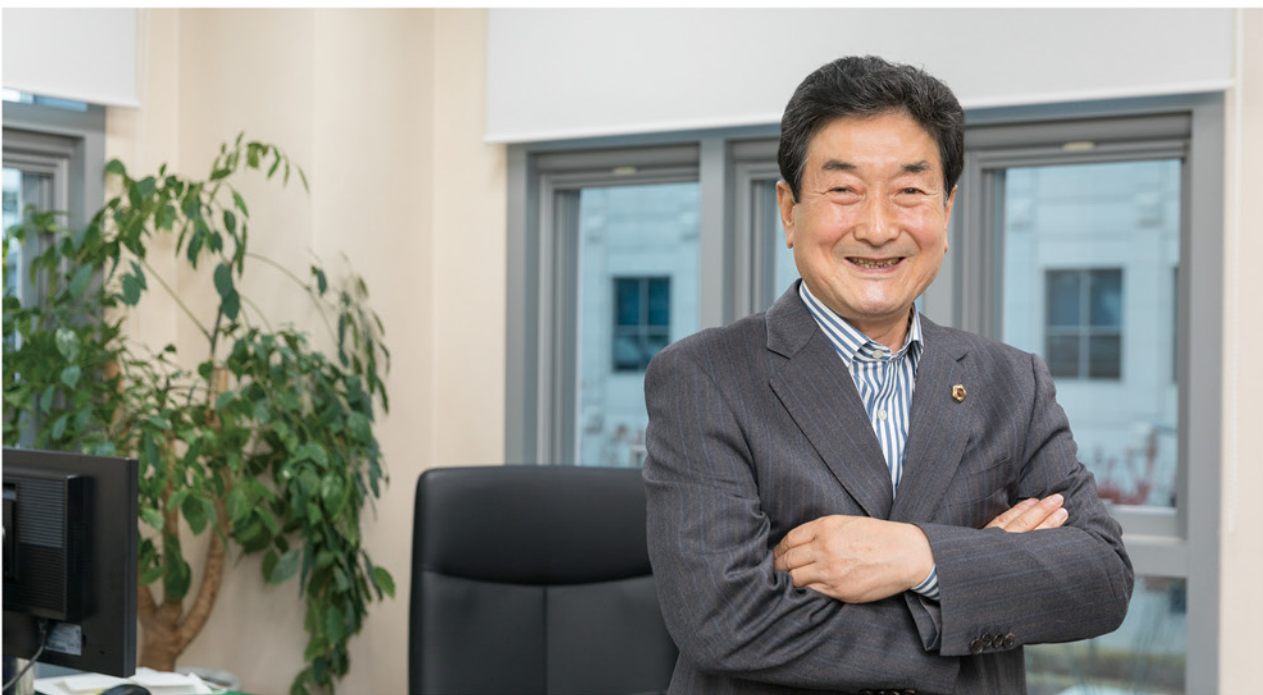
Q. 영주와 관련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A. 영주에서 보건소장으로 공직생활을 했었습니다. 2005년 근무 당시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문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젊은세대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젊은세대가 거주할 만한 여건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영주시에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산업단조성을 기회로 삼아 젊은사람들이 정주할 만한, 경제적·문화적·교육적 여건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영주가 과거의 도시가 아니라 미래의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닥터헬기'에 대한 뜻깊은 에피소드

A. '닥터헬기'라고 하여 의료진이 탑승해 출동하는 헬기를 말합니다. 지금은 전국 13곳의 병원이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시, 차량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거리상, 안전상으로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에 닥터헬기를 활용해 시민을 위험에서 빠르게 구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또한,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지방에도 '닥터헬기'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영주 보건소장으로 있으면서 생각해온 것이지만,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안전한 삶이 보장되도록, 삶의 질을 높일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운사를 거닐며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다

농수산위원회
의성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Q. 의원님이 추천하는 의성의 명소가 있으십니까?

A. 고요한 숲, 나를 온전히 마주 하고 싶다면 의성 고운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소나무와 솔내음이 가득한 향기로운 고운사를 걷다 보니 '앞으로 이곳에 자주 방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차도 한 잔 마시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즐거움을 의성 고운사에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 많은 곳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 산이나 사찰을 방문하면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마음도 다 사라지고 온전히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고요함과 편안함만이 남는 것 같아요.

Q. 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십니까?

A. 여성 농업인이 경북에서는 51%, 전국으로는 5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여성 농업인이 매우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분들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

이 경북의 경우, 도내전체 여성 농업인의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오랜 노동으로 인해 각종 질환, 병을 달고 살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데, 최소한의 노후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여성 농업인들도 제도적·경제적인 보상,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Q. 의성을 위해, 도의회를 위해
앞으로 의원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농업인들이 올바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데요. 우선, 여성 농민에 대한 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성 농업인들도 농업경영체에 직접 등록하고 제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가 아닌 대한민국과 경북이 함께 여성 농민에 대한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을 보일 때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속리산의 숨은 진가! 빠어난 풍광과 함께 걸어요

건설소방위원회
상주 / 국민의힘

김진욱
의원

Q. 의원님이 추천하는 상주의 명소가 있으십니까?

A. 상주는 흔히 농업의 수도라 불릴 만큼 다양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들로 유명합니다. 또한 낙동강을 끼고 흐르는 유려한 풍광을 배경으로 하는 관광지에서부터 오랜 지역 역사가 남긴 수많은 유적지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명소들의 수는 손에 다 꼽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상주시 화북면 속리산 일대에는 수려한 산세로 인해 여름이면 계곡 피서객들과 가을에는 단풍 관광객들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흔히들 속리산이라고 하면 법주사가 위치한 충북 보은군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속리산의 주봉인 천황봉은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에 위치해 있고,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문장대 또한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속리산을 오르는 등산로 중 화북면 장암리에서 오르는 등산로가 뛰어난 풍광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은군에서 오르는 등산로에 비해 사람들에게 덜 알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부분이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Q. 관광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늦은 감은 있지만, 속리산 일원인 화북면 장암리 일대에 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된다면 교통적 접근성도 향상되고, 주변 체험시설도 확충이 되어, 상주시 속리산의 잃어버린 명성도 되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 유명명소가 가지는 브랜드 효과는 지역관광에 서부터 지역농산물 판매, 지역홍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속한 것은 스스로 알리고, 지켜나가는 것이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넘어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꼭 해 나가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



자연의 멋과 정취 김천에 ‘살어리랏다!’

행정안전복지위원회
김천 / 국민의힘

나기보
의원

Q. 의원님이 추천하는 김천의 명소가 있으십니까?

A. 초록빛 감성이 일렁이는 도시 김천에는 다채로운 명소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지사는 황악산의 절경을 배경으로 고즈넉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입니다. 김천의 또 다른 랜드마크인 부항댐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총 256m 길이를 자랑하는 부항댐 출렁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부항댐 주변으로 산내들 생태공원, 수달테마공원, 물문화관, 짚와이어 등이 조성되어 있어 테마관광지로 급부상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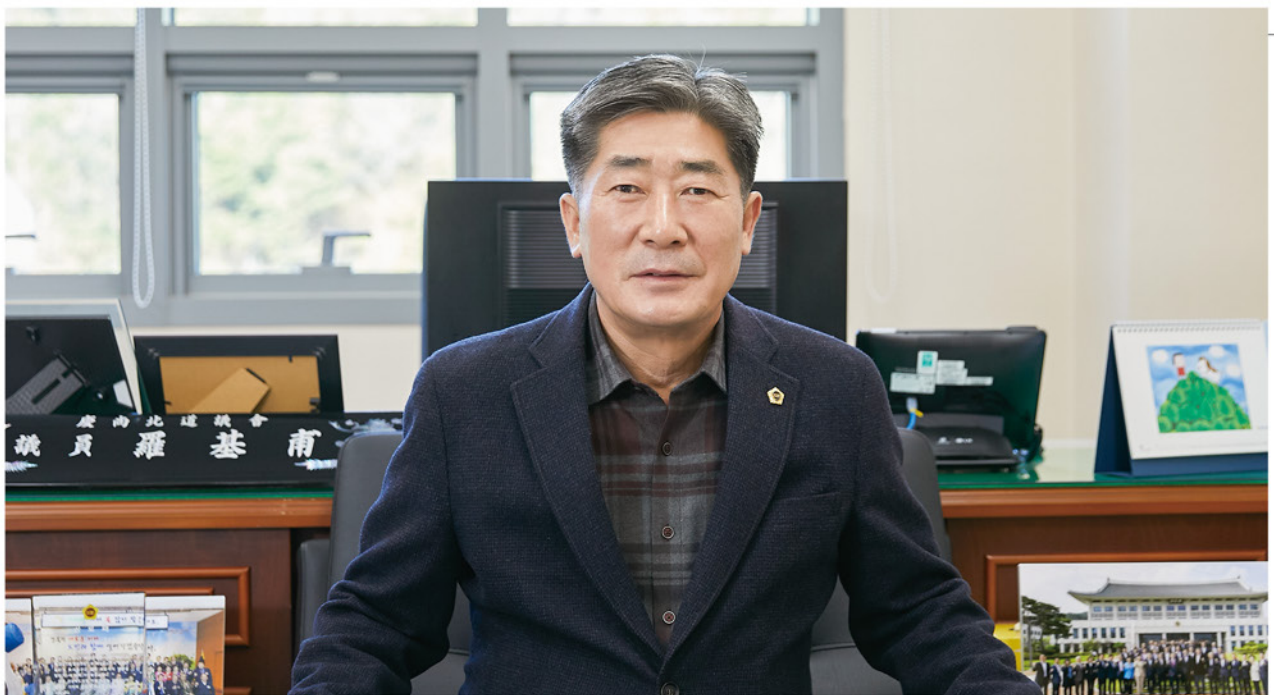
Q. 김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셨기에, 추억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A. 저는 김천 중학교와 김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곳의 토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시절부터 김천이 품은 자연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수혜자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경북은 워낙 산세가 좋아 이름난 계곡들이 많은데요. 김천 역시 무흘구곡이라

는 빼어난 계곡을 끼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정구(鄭誥) 선생이 쓴 시의 9개 계곡으로 김천에서 성주까지 흐르는 계곡입니다. 특히 물이 좋아 여름이면 김천시민들의 피서지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저 역시 여름방학이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계곡으로 피서를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름 더위도 날리고, 학업에 대한 피로를 씻어내기도 했습니다.

Q. 또 다른 추천 명소가 있다면?

A. 그린뉴딜, 친환경과 같은 이슈가 전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 김천에도 물소리생태숲, 치유의숲 등 '자연'을 테마로 한 관광 콘텐츠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지문화공원, 사명대사공원과 더불어 134,117㎡의 규모로 조성된 친환경생태공원은 선인장온실, 삼림욕장, 산책로, 광장, 쉼터 등의 다채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언택트 관광 23선에도 오르기도 한 친환경 생태공원에 꼭 한 번 방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새마을운동의 태동지에서 새로운 구미를 꿈꾸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 국민의힘

김상조
의원

Q. 구미의 대표적인 관광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박정희 대통령 생가는 제 지역구에 있기도 하고, 생가와 모교랑 가깝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자주 왔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낙업을 주우면서 정비활동을 하기도 했었지요. 이곳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본격적으로 관광지가 됐어요. 조국 근대화의 산실이기도 했고, 당시 국민들이 5천년 가난과 배고픔을 잊을 수 있게 해줬던 지도자였으니 역사적인 장소라 할 수 있죠. 그밖에도 해평면 도리사, 도개면 신라불교초전지 등 많은 관광지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관광지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미시·김천시·칠곡군 금오산 관광순환도로 개설을 제가 도정 질의를 통해 요구하였고 현재 도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구미시가 관광문화벨트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Q. 박정희 대통령 생가의 관광포인트를 꼽자면?

A. 생가와 연계한 관광 및 산업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새마을운동 테마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

안에 새마을세계화재단 및 행복재단, 경북메이커교육관 등 다양한 단체나 시설을 유치한 상황입니다. 특히 2021년 3월경 문화시설을 변경 후 2021년 4월 1일자로 경상북도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새마을운동 테마 공원 전시관은 내부 수리 중인데요. 완공이 된다면 새마을 운동이라는 역사를 더욱 잘 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세대는 몰랐던 과거 속 여러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 가능하게 될 겁니다.

Q.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펼치실 예정인가요?

A. 쉽게 말하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의정 스타일은 바로 찾아가는 의정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지금도 현장 방문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원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서로 상충하는 민원이 있을 때도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말만 들어주기보다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과거의 아픔 현재의 평화가 담긴 충혼탑

농수산위원회
구미 / 국민의힘

정근수
의원

Q. 의원님이 추천하는 구미의 명소가 있으십니까?

A. 산의 정기를 느끼고 싶을 때면 비봉산 충혼탑을 찾습니다. 지나가는 구름도 잠시 머물러 예를 갖춘다는 이곳은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들의 위대한 생애와 기록한 뜻이 새겨진 소중한 자리입니다. 호국보훈의 날, 역사적 기념이 있는 날, 한번 방문하셔서, 그분들의 희생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만큼, 잠시라도 그분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혼탑 주변으로 산의 정기를 느껴볼 수 있는 비봉산 둘레길이 이어져 있어 조용히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Q. 앞으로 구미가 어떻게 발전되었으면 하나요?

A. 이전까지의 구미는 대규모 전자산업과 넘치는 일자리로 불빛이 꺼지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구미의 경제적 활기도 점점 침체되는 상황에,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에는 영남 최고의 명산인 금오산과 산림휴양공간인 구미 에

코랜드 등 많은 관광명소와 과거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역사적 명소들이 즐비합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구미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순천만 국가 정원,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처럼 구미 국가 정원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이 공업도시의 이미지를 태화강 국가정원을 조성하면서 생태도시 이미지로 탈바꿈한 것처럼, 구미역시 새로운 성장을 위한 의미있는 변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역을 넘어 많은 관광객이 구미를 방문해 구미의 아름다움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금오산은 도심에서도 가까워 접근성도 뛰어나고 주변에 유명한 맛집들도 많아, 이미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만큼, 구미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도 충분한 매력을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다가올 2021년에는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마음, 새 출발의 미를 담아 구미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해 봅니다. 



의원발의 조례

01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춘우 의원



개정 이유

▷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감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감을 추가 규정함
-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교육청을 추가 규정하고, 대상기관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함
-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교육청을 추가 규정하고 증인선서 관련 규정을 정비함

02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영선 의원



제정 이유

▷ 쓰레기 및 폐기물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친환경소재 관련 기술개발 및 기업의 창업 지원, 친환경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수출 지원 등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03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정영길 의원



개정 이유

▷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2019.10.31. 시행)와의 일부 중복적인 내용을 정비하고,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및 영유아(嬰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며 출산장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도지사는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전·산후 우울증 치료 지원 사업,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사업, 청소년 임신부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을 규정함
- 고위험임산부, 19세 미만 청소년 임신부 지원사업, 난임극복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
- 공공산후조리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04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남영숙 의원



개정 이유

▷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 신설 및 센터 종사자 및 사업에 관한 용어 정의 및 조례의 주요 내용을 현행 법령 체계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

주요 내용

- 도지사는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도지사는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아동의 학습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등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사업 계획, 센터 사업의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05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상조 의원



개정 이유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과 같은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함.

주요 내용

- 교육재난 발생시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신설 규정함
- 도지사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06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곽경호 의원



제정 이유

▷ 스포츠인권 보호 강화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도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도내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환경 조성 및 긍정성을 확보하여 건강한 스포츠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인권의 지속적 증진을 위해 도민 스포츠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스포츠 인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07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영선 의원



제정 이유

▷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경상북도 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
도록 함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물
다양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생물다양성센터의 업무를 명시하고, 비영리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08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조주홍 의원



제정 이유

▷ 어촌 사회의 지역공동체 유지 및 가족 어업을 계승하는 경우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가업
승계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도지사는 가업승계 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함
- 어업경영정보제공, 경영·기술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가업승계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
- 경상북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가업승계 어업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

09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준열 의원



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보험가입대상인 피보험자를 도민으로 하고 도내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험기관에 지급하는 보험료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
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보험기관과의 보험계약 체결하도록 규정함

10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배진석 의원



제정 이유

▷ 2015년 12월 제정된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 주거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주요 내용

-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상북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주거실태조사 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규정함
-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경상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
-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함

11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준열 의원



개정 이유

▷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재해구호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을 도 금고에 별도로 예치·관리하도록 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도록 함

12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박영환 의원



개정 이유

▷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공항에 취항했던 대형항공사가 재정적 이유로 운항 중지에 들어갔고, 저가항공사가 신규 취항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재정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보완하여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재정지원 대상에 국제노선, 부정기적 운항을 추가함
- 재정지원 기준에 운항지원금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함

13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준열 의원



개정 이유

▷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임무에 도민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연합회 운영 지원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70만 도민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연합회의 임무에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구조 활동 등을 추가함
- 연합회 운영지원비 지원 규정 명시

14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홍정근 의원



개정 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타사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상위법령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서 타사광고를 규정함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벽면이용 간판 표시방법을 주유소, 가스충전소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사광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중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15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대표 발의
남영숙 의원



제정 이유

▷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강화된 교육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독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영토교육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영토 주권인식 함양하기 위함

주요 내용

-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독도교육 프로그램개발사업,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
-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16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대표 발의
박채아 의원



제정 이유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도내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 공문서 등의 작성, 정책 등의 이름에 쉽고 올바른 한글을 사용하도록 함
- 국어를 바르게 쓰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7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박미경 의원



제정 이유

▷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교육감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난치병 학생 지원금 결정과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난치병 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8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하수 의원



제정 이유

▷ 최근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효율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계획은『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생 및 교직원 간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학교시설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을 규정함
-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시 교육부·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휴업 및 휴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은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19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상조 의원



제정 이유

▷ 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코로나19·태풍 등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 등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규정함
-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재난의 보전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0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윤승오 의원



개정 이유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도내 근로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함.

주요 내용

-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추가함

21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이철구 의원



제정 이유

▷ 경상북도와 지역 대학 등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 도지사는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역의 경제·역사·문화·관광·교육 등에 대한 협력 등 대학협력사업을 규정함
- 도지사는 대학협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대학협력 발굴사업 선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대학협력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22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곽경호 의원



제정 이유

▷ 경상북도의 체육관련 조례를 통합운영하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도지사는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학생체육, 스포츠복지 등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지사는 체육인 발굴·육성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함
- 성폭력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23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선희 의원



개정 이유

▷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조문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도지사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전통문화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1만㎡ 이상의 공공건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설치의무가 있음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함

24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동업 의원



개정 이유

▷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등록문화재에 대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 및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 내용

- 「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도등록문화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 사항 중 '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위원의 임기 중 연임을 '두 차례' 로 하여「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

25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이동업 의원



개정 이유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른 시도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어 운행제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운행제한 제외 대상을 「지방세법」상 영업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취한 차량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로 개정

26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김준열 의원



제정 이유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안전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도민의 안전교육 시책 추진 참여에 대해서 규정함
- 도지사는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도지사는 도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27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대표 발의
김준열 의원



제정 이유

▷ 「소방기본법」에 따라 도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의 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대상을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규정함
-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신청 및 지급 방법에 대해서 규정함
-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부정지급 환수조치에 대해서 규정함

28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한창화 의원



개정 이유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일정 비율 이상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내용

•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2분의 1로 규정함

29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박창석 의원



개정 이유

▷ 빈집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정하고 자 함.

주요 내용

•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을 20퍼센트로 규정함

30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조현일 의원



제정 이유

▷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편견과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육감은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3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배한철 의원



제정 이유

▷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거주지역으로 인해 공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교육감은 지역간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 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영선 의원



제정 이유

▷ 경북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고, 이에 맞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진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각 학교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고, 교육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QnA

문고 들으며 답하다

교육의 평등을 통해 공교육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배한철 의원

교육위원회 / 경산 /
국민의힘



Question #1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한철 의원 요즘 젊은 세대들 간에 금수저, 흙수저와 같이 자조적인 말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다고 마냥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현실이 주는 쓸쓸함까지는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사회가 불공정, 불공평을 논함에 있어 교육의 기회, 특히 공교육에 있어서는 논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주지역으로 인해서 교육의 기회마저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다른 것을 제쳐두고라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공교육 내에서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Question #2 이번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한철 의원 먼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5년마다 교육감의 책무,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계획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학교의 지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교육계 혼자만의 노력으로 쉽게 이뤄질 수 없는 것들도 있기에 필요할 때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과 협의를 통해 교육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Question #3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육 발전에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면?

배한철 의원 경상북도 많은 곳에서 지역적 차이와 재정적 여건으로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도내 학생들이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도시 경상북도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nA

문고 들으며 답하다

주민을 생각하는 도정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정영길 의원

농수산위원회 / 성주 /
국민의힘



Question #1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영길 의원 언론에서도 여러번 소개되었지만 전라남도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라고 있습니다. 해당사례를 접하고 우리도에도 꼭 적용해 보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는 지역주민과 전문가는 물론, 직접 뛰어놀 어린이도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이기구가 아니라 놀이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전문 자문단도 구성해서 아이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Question #2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다면?

정영길 의원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라면 역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노년층, 아이들,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소중한 우리 이웃들이 법의 보호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이웃들이 기대고 쉴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의정 방향입니다. 최근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지역문화 발전공로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칭찬과 상들이 제 스스로를 더욱 정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Question #3 앞으로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도정에 대한 비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정영길 의원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당장의 제 바람입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면 제도를 고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농어업인을 비롯해 모든 도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도록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QnA

묻고 들으며 답하다

잠수어업인의 건강 도모로 삶의 질을 높이다

한창화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 포항 /
국민의힘



Question #1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한창화 의원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해녀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방문하게 됐는데 해녀분들 대부분 진통제를 먹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진통제를 먹냐고 물으니, 머리가 아파서 먹는다 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15~30m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잠수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장비도 고 가고, 장비 운영에 10억씩 들어가는데 이를 운영할 수 없는 거죠. 생계를 위해 생긴 직업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안타까워 치료라도 맘편히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 습니다.

Question #2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한창화 의원 대부분의 잠수어업인은 수십년간 바다에 잠수하 는 고된 작업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그분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사회보장적 차 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 민 건강보호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 인 부담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진료지원을 위해 도에 서 해당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환자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입 니다.

Question #3 조례가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한창화 의원 제가 한분한분 여쭙 보지는 못했지만, 조례를 발 의하고 난 후 잠수어업인의 60% 가까이가 진료비 지원을 받 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경북대, 영남대, 계 명대 등 대학병원도 추가하여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 공받도록 하였고, 지정의료기관을 한의원과 일반 의원까지 대폭 확대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은 지원이라도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해 지고 삶의질이 나아진다면, 그것이 곧 그분들에게는 행복일 것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것이 결국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목 표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QnA

묻고 들으며 답하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경상북도의 정신을 계승하다

박권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 청도 /
국민의힘



Question #1 최근 준비하고 계신 조례가 있으신가요?

박권현 의원 제 지역구인 청도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새마을운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지역입니다. 저 역시 도의회 '지구촌 새마을운동 연구회' 회원으로 새마을운동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와 여러 이유로 현장에서 새마을지도자가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높이고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칭「새마을운동단체 활성화 및 새마을 지도자 사기 진작」에 관한 조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Question #2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의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박권현 의원 새마을 지도자는 봉사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대우가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조직을 운영하고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자체의 사정상 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이어가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쓴 지도자에게 포상하거나 도지사 표창 같은 응당한 평가가 주어진다면 지도자에게도 자랑이 될 것이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uestion #3 다선의 의정활동 중 여러조례들을 발의하셨는데, 발의시 중점을 두는것이 있으신가요?

박권현 의원 3선 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조례를 만들기 위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인은 시행규칙의 부재였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함에도 미비한 상태로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고 조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기위한 방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과만 쌓는 그런 뜬구름 잡는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QnA

문고 들으며 답하다

영천의 미래 신성장 동력! 말산업과 함께합니다

이춘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천 /
국민의힘



Question #1 최근에 발의하신 조례안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춘우 의원 아직 승마에 대한 인식이 생소한 면이 있지만, 승마는 신체의 평형감과 유연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담력과 순간적 판단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이점이 많은 스포츠입니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동물과 교감을 통해 재활이나 심리치료에도 활용되고, 말의 생산·육성·유통·서비스 단계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입니다. 특히 도내에 영천, 구미, 상주, 의성, 군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만큼, 경상북도가 말산업의 중심지로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상북도가 말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경상북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Question #2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춘우 의원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향후 영천소재 한국마사회 경마장으로부터 매년 징수될 레저세 중 일부를 말산업 육성에 환원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마사회의 영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영천)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레저세를 감면하여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Question #3 조례를 통해 기대하는 성과가 있나요?

이춘우 의원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 당시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 소득이 90% 수준에서 현재 60%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농촌사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말산업 육성을 마련한다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촌 경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영천경마공원의 개장과 함께 경마시즌에는 말·사람·자연이 어우러진 경마축제의 장에서, 비시즌에는 말 문화를 체험하고 휴식하는 힐링 공간에서 도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의 생산·육성·유통·서비스 단계에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청년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QnA

문고 들으며 답하다

성공을 향해 오르는 경북의 승강기 산업을 위해

김수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의성 /
국민의힘



Question #1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수문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목적으로 수입을 해오는 승강기와 그 부품에 관한 안전인증 면제 제도를 마련해 경상북도 내 승강기 산업의 수출을 장려하고자 했습니다. 해당조례는 제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했던 조례입니다.

Question #2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수문 의원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부품 안전인증의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확인하게되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Question #3 해당 조례가 불러온 성과가 있을까요?

김수문 의원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세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도내 수출용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 관련업체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승강기 산업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은 수출용 승강기 산업의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그쳤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규제를 혁신해 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내 기업가들이 불편함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성장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nA

묻고 들으며 답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진정성 있는 조례를!

김준열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 구미 /
더불어민주당



Question #1

발의하신 조례들을 소개해주세요.

김준열 의원 7월부터 반년정도 건설소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건설·소방 관련 조례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이나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등 5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었음에도 소방관분들이 직접 응원의 말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소방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제가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Question #2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조례안인가요?

김준열 의원 급박하게 구조 활동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재산을 훼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구로 진입을 할 수 없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야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소방관이 자비로 훼손한 유리창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을 위해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했음에도 책임을 져야만 했던 것이죠. 이런 문제를 법률적으로 보완했구요. 또 다른 하나는 대형 화재의 경우 주변 소방차들을 다 불러도 물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살수차를 부르면 해결이 되는데, 예산이나 행정적 문제로 물도 마음껏 못쓰고 있었던 겁니다. 조례를 통해 소방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Question #3

많은 조례안을 발의 하셨는데,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드시나요?

김준열 의원 하나의 조례는 도민의 삶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자료를 찾아보며 진짜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지 고민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조례에 담깁니다. ‘진정성’이 녹아있는 조례가 도민을 위한 진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

QnA

문고 들으며 답하다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돕겠습니다

이철구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포항 /
국민의힘



Question #1 최근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철구 의원 지방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화에 따른 지방 인구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대학은 경제·산업·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혁신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혁신 기반 구축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대학 간의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하였습니다.

Question #2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철구 의원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는 경상북도와 지역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과의 협력 사업 및 지원에 관한 내용과 협력사업의 발굴·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각종 사업지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경상북도 대학협력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지역 대학 간 협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혁신기관들이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다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uestion #3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철구 의원 부족한 저를 세 번의 시의원과 두 번에 걸친 시의회 의장, 그리고 도의회로 까지 보내주신 것은 모두 도민들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지지에 부응하고자, 도의회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도 많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들도 많습니다. 경상북도와 지역구인 포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서로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구성된 환동해권 발전연구회를 통해 상생·협력을 위한 버팀목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여, 도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QnA

문고 들으며 답하다

새로운 출발, 바르게 일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장경식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포항 /
국민의힘



Question #1 기억에 남는 조례안은 무엇인가요?

장경식 의원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경상북도의 장기 등의 기증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지금도 장기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관습과 인식으로 인해 장기기증에 대해 꺼리는 경향도 많고, 혹은 그러한 뜻은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동참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 희망자 등록을 위해 등록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과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 홍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Question #2 장기 기증 외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장경식 의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뉴스에서 들리는 기상관측이래 최고, 최저라는 수식어가 일상어처럼 반복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주저할 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를 살아갈 청소년들에 대한 환경교육이나, 지금 당장 환경문제를 실천해야 할 세대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경제·문화도 결국 환경이라는 우리 삶의 터전이 있을 때 의미있는 것입니다.

Question #3 도의원 활동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경식 의원 지방의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11대 전반기 의회에서는 경북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활동에 임했습니다. 그간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이지만,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는 처음의 마음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기간동안에도 말은바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계획된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도민들에게도, 나아가 경상북도에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nA

문고 들으며 답하다

응비하는 경북, ‘사람’과 ‘경제’를 생각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영천 /
국민의힘

Question #1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영환 의원 경상북도의 주민등록인구는 2015년 270만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지난 2019년에는 266만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과 인구대책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지원과 인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 사업과 인구교육을 수행하는 학교, 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 인구정책의 종합적인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경북도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해 경북도의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Question #2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박영환 의원 먼저 경상북도가 겪고 있는 출산을 저하와 고령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조례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화기본법」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비슷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도지사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도지사와 연계하여 인구정책 시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책과 자문기구 설치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Question #3 지역발전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박영환 의원 코로나19사태로 지역사회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고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 발행 등 확장적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경북형 뉴딜정책 SOC사업을 추진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확장적 재정은 단순한 채무·적자가 아닌 코로나 조기극복과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재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경기회복과 지역건설 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QnA

문고 들으며 답하다

함께하는 삶 같이의 '가치'를 더합니다

조주홍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영덕 /
국민의힘



Question #1 최근 발의한 조례안은 무엇인가요?

조주홍 의원 경북도 어업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어업 인력의 이탈이 심각하고 고령화 등으로 어업의 지속성이 매우 취약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업 소득 창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착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어촌체험 및 어촌 관광 활성화 지원,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으로 가업승계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Question #2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 조례안」에서 가장 주안을 두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조주홍 의원 현재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맡기 전에는 농수산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를 맡았습니다. 다양한 위원회 활동으로, 지역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들어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내놓은 조례안이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어업인은 힘들고 고된 직업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직업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온 가업과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조례는 어업이 기피 직업이 아닌 다음세대에도 이어질 가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게끔 하는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Question #3 2021년 의원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조주홍 의원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 도민이 직접 복지를 선택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피되 일반인들의 관심이나 시선이 닿지 않는 곳도 유심히 살펴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을 의정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지역민들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묻고 살펴, 한분의 어려움이라도 해결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QnA

문고 들으며 답하다

명확한 성장동력으로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다!

박용선 의원

교육위원회 / 포항
국민의힘



Question #1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신가요?

박용선 의원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따라 경북도 역시 4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많은 교육과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농업의 변화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아우르는 6차산업이 지금의 농업현실을 생각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교육도 미래를 책임질 4차산업과 더불어, 현재와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6차산업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했습니다.

Question #2 올 한해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박용선 의원 2018년말 기준으로 경북도내에 16만 9142본이 무궁화 동산, 가로수, 공원, 유적지, 청사 등에 식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임에도 불구하고 관심부재와 예산부족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무궁화 진흥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보급과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내년도 무궁화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무궁화 동산 사업의 내실화도 요구하였습니다.

Question #3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박용선 의원 제가 예전부터 생각해 오던 것이 있는데, 경북에서 생산되는 대표 제품들을 구입시 금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하여 독도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토의 상징인 독도를 도차원에서 알리고, 우리도의 생산품 판매에도 기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왜곡시도들이 더 빈번하고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그 순간에만 머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독도나 무궁화에 관심을 두는 이 유도 일상 속에서 나라에 대한 자연스런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 땅에서 앞으로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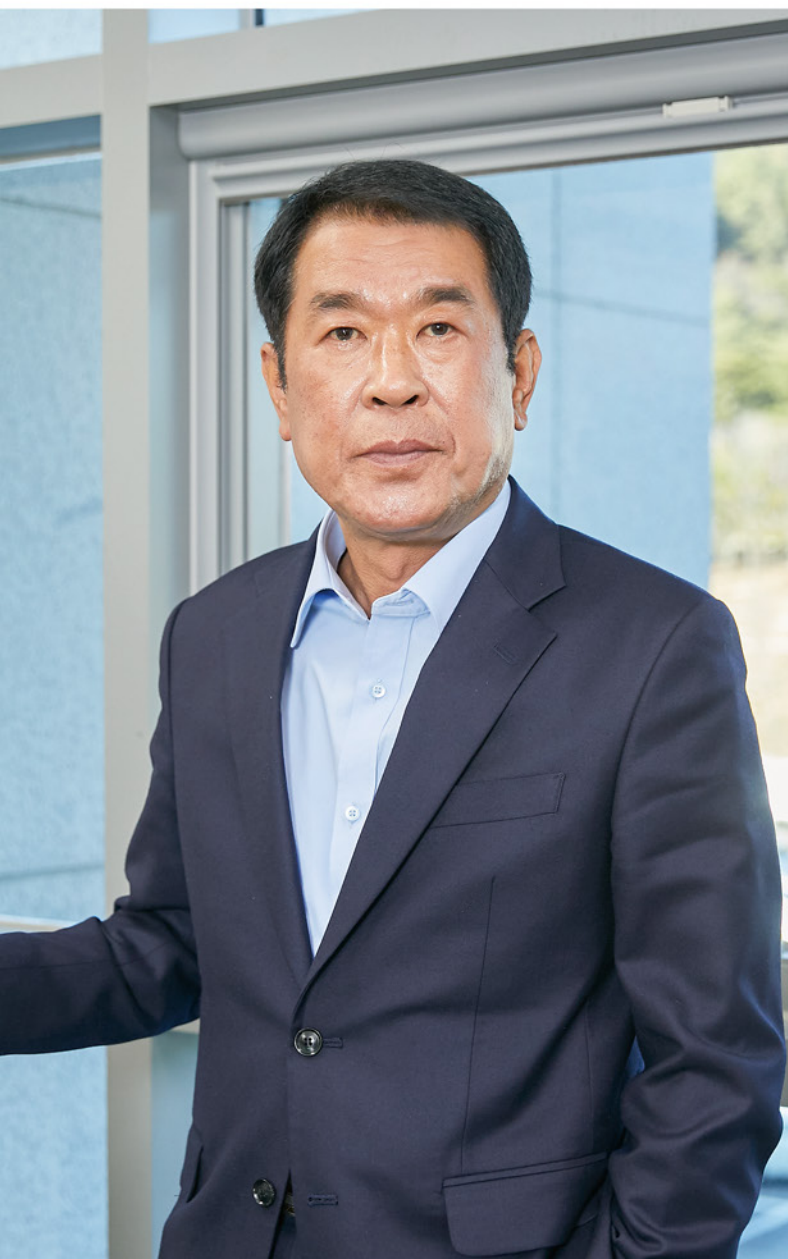
QnA

문고 들으며 답하다

사각지대 없는 의정! 이모저모를 꼼꼼히 살피다

윤창욱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 구미
국민의힘



Question #1 최근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는데, 이번감사는 어디에 중점을 두셨습니까?

윤창욱 의원 매번 감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막대한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우선적으로, 집행부나 산하기관의 사업시행에 있어, 미처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노력합니다.

Question #2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창욱 의원 내년 10월에 구미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물론 현재도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내년 하반기에 코로나19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된다면, 무사히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다시금 경북을 찾을 것을 예상해,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관광사업과 체육대회를 서로 연계하여 준비한다면, 경북의 새로운 모습을 전국에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장애인체육대회도 개최가 되는데, 일반인 선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훈련하고 노력해온 선수들이 많습니다. 경북장애인체육회에서는 이러한 선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수 선수와 기업의 지원을 연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선수들이 일반인 선수에 비해 가질 수 있는 경제적 기회가 적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수 장애인선수 못지않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장애인체육회 감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수면에 올려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Question #3 앞으로 기대하시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윤창욱 의원 위에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근래에 이슈화되었던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문제,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지훼손 문제, 행사·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대체방안 등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결과가 즉시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저는 이러한 문제제기들이 바로 우리도 변화의 시작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QnA

문고 들으며 답하다

수요자 우선 정책 마련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최병준 의원

교육위원회 / 경주
국민의힘



Question #1 연일 바쁜 의사일정을 이어가고 계신데, 최근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병준 의원 최근에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몇몇 사업에 대한 아쉬운 점이 눈에 띄었는데,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사업완료 후에도 목표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잠깐의 실수가 도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예산의 집행은 항상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요자 우선의 정책을 마련하여,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게끔 대책마련과 집행의 철저를 요구했습니다.

Question #2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예산심사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최병준 의원 제가 올 하반기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전례없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산심사 시기를 맞아 저를 비롯한 예결위원 모두가 21년도 예산심사에 연일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코로나 19 대처와 경기부양을 위해, 사상최대인 15조 원에 이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경기침체로 세수입은 줄어든 반면 세출요구는 늘어난 상황이라 그 어느 때 보다 신중하고 세심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한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신종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내년에는 모든 도민이 다시금 일상을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uestion #3 끝으로 하고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최병준 의원 저는 21년도는 경북도가 새롭게 일어서는 기회가 될 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변화된 사회는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국내여행의 확대, 디지털 교육의 일반화, 온라인 시장의 확대 등 예상가능한 변화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변화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위기는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처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도가 앞으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우리도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QnA

문고 들으며 답하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여는 통합신공항을 준비하다

홍정근 의원

행정안전복지위원회 /경산
국민의힘



Question #1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셨는데, 소감말씀 부탁드립니다.

홍정근 의원 먼저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허락해 주신 도민분들과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신공항이전이라는 역사적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감독과 지원을 위한 위원회이니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장직에 임할 생각입니다.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오랜 기간 협의 끝에 지난 8월 28일 군위 소보 및 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대구시의회와 서로 소통·협력하여 계획에 어긋남 없이 신속하게 추진·개항하여 영남권의 새로운 하늘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2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홍정근 의원 통합신공항 건설로 인해 지역 건설업은 물론 공항배후산업인 물류산업,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공항 연결도로, 철도 교통망 구축, 공항연관산업 육성, 배후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그동안 정체되어온 지역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의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토부와 국방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중앙정부의 투자 확대 등 신공항통합건설의 핵심적인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uestion #3 앞으로 의정방향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홍정근 의원 현재 가덕도신공항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성 미달로 이미 종료된 문제입니다. 지역간의 소모적 갈등만 일으키는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논란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정부에 지역민의 단호한 뜻을 전달하고, 지역정치권과도 연계하여 하루빨리 논란이 종식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2021년을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아카이브 IV

새로운 도전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경북도의회’

〰

정치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의회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북도의회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시대가 만드는 역사적인
순간과 영광을 도민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9, 10, 11대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의 유급화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압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적용되었으며, 2016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10대 지방의회부터 세입·세출의 출납 마감기한이 회계연도 말로 조정되어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7월에 열도록 하던 것을 5월~6월에 열도록 개최 시기를 변경하였다.





- 15년 만의 최고 투표율, 열린 의회를 실현하다 •

제9대 지방의회(2010~2014)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제9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였다. 제9대 지방의회는 제8대 대비 의원정수가 738명(교육의원 5명 포함)에서 843명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시·도위원의 정수가 28명 증가한 가운데 교육위원회가 시·도회의의 상임위원회로 편입됨에 따라 교육의원 82명이 시·도 의원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52개 선거구에서 52명의 지역구의원과 6명의 비례대표제 의원, 그리고 교육의원 5명 등 총 63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2010년 7월 6일 개원하였다. 후반기 의장단은 의장에 송필각 의원(칠곡)이 선출되었으나 2014년 4월 3일 사직으로 이시하 의원(문경)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전반기(2010.7.6.-2012.6.30.)

이상호 의장, 황상조·송필각 부의장

후반기(2012.7.1.-2014.6.30.)

송필각, 이시하 의장, 박성만·한혜련 부의장

전국 시·도의원 당선자 현황

도별	총의원 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선의원 수	843	114	53	34	38	26	26	26	131	47	35	45	43	42	63	59	41

단위: 명



- 도청 이전으로 경북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다 •

제10대 지방의회(2014~2018)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제10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였다. 9대 대비 의원 수는 843명(교육의원 82명 포함)에서 794명(교육의원 5명 포함)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의원 직선제가 2014년 6월 30일 일몰되어 제주를 제외한 교육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영향이다.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52개 선거구에서 54명의 지역구의원, 6명의 비례대표 의원 등 총 60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2014년 7월 8일에 개원하였다.

전반기(2014.7.8.-2016.6.30.)

장대진 의장, 윤창욱·장경식 부의장

후반기(2016.7.1.-2018.6.30.)

김응규 의장, 고우현·장두욱 부의장



전국 시·도의원 당선자 현황

도별	총 의원 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선 의원 수	794	106	47	30	35	22	22	22	15	128	44	31	40	38	58	60	55	41

단위: 명



- 관행을 벗고, 도민과 새로운 미래를 그려내다 •

제11대 지방의회(2018~2022)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제11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였다. 시·도의회의원 선거구가 변동되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선출 인원이 30명 늘었다.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52개 선거구에서 54명의 지역구의원, 6명의 비례대표 의원 등 총 60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2018년 7월 5일에 개원하였다. 전반기 부의장에 김봉교 의원(구미)이 선출되었으나 사퇴(2020.1.13.)로 방유봉 의원(울진)이 부의장(2020.2.5.)에 선출되었다.

전반기 의장단(2018.7.5.-2020.7.4.)

장경식 의장, 배한철·김봉교·방유봉 부의장

후반기 의장단(2020.7.5.-현재)

고우현 의장, 김희수·도기욱 부의장

전국 시·도의원 당선자 현황

도별	총 의원 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선 의원 수	824	110	47	30	37	23	22	22	18	142	46	32	42	39	58	60	58	38

단위: 명



집콕 라이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추천도서

요즘처럼 집에만 있어야 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독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기를 수 있고, 건강한 면역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마음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을 추천합니다.

“클래식은 삶이다.”



출판사
출판사

<소설처럼 아름다운 클래식 이야기>
이채훈(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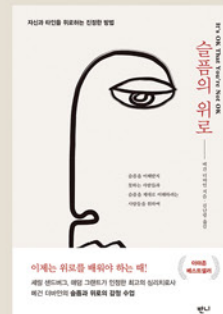
‘젊은 아저씨 두 분이 연주회장 입구를 어슬렁거리는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연주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표가 없어요.” 아저씨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듯 물었다. “너 오늘 뭐 연주하는지 알거나 해?” 까까머리 꼬마가 클래식을 알 리가 없다고 여긴 게 분명했다.’

누군가에게 클래식은 어렵고 지루한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악 칼럼니스트 이채훈 PD에게 클래식은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우리 집이 예술의 전당이 되는 마법을 보고 싶다면 <소설처럼 아름다운 클래식 이야기>를 추천합니다.

슬픔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연장이다. 슬픔은 상실에 대한 건강하고 온당한 반응이다. 슬픔이 기분을 망친다고 해서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며, 미칠 것 같다고 해서 당신이 미쳤다는 의미가 아니다.

‘슬픔 옹호자’ 메건 더바인 심리치료사가 쓴 <슬픔의 위로>는 나와 타인의 슬픔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슬픔을 다뤄야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상실과 슬픔으로 지치고 힘든 마음을 달래주고 싶다면 <슬픔의 위로>를 추천합니다.

“나와 타인을 위로하는 법”



출판사
출판사

<슬픔의 위로>
메건 더바인



한 해의 이야기를 머금은 태양을 담다



• 뜨거웠던 1년의 끝에서 •

울릉도의 일몰

다사다난했던 365일의 시간을 머금고 올해 마지막 태양이 저문다. 작은 섬 울릉도에서 맞이하는 일몰은 그 자체로 이미 낭만일테지만, 마지막이라는 특별함이 더해져 감동은 배가된다. 울릉도는 발 닿는 곳에서 시선만 돌려도 끝없이 펼쳐진 청정 자연을 마주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북면의 천부항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특히 아름답다. 바다 위에 그려지는 형용할 수 없는

일몰의 색감과 방파제 위에 앉은 새들의 윤곽이 더해져 한 폭의 그림이 된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함께'의 의미를 되새겨 본 2020년. 어스름푸레한 저녁의 시간에 잔잔한 바다 위로 떨어지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심 없이 달려온 스스로를 토닥이고 새 마음가짐을 다져본다.

• 강렬한 해돋이의 추억 •

호미곶의 일출

상생의 손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른다. 역광이 주는 장엄한 풍경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은 잊지 못할 추억의 한 장면이 된다. 포항 호미곶은 굳이 새해가 아니더라도, 일출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해돋이 명소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연오랑과 세오녀를 상징하는 조각물을 지나고, 발톱을 세운 호랑이상도 지나 해맞이 광장의 한복판에 서면 하늘을 향해 우뚝 선 오른손바닥 청동상의 거대함을 실감한다. 세상 모든 것을 담아내려는 오른손은 해안도로 건너편 물속에서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떠받치듯 서 있는 왼손바닥과 마주 하고 있다. 마치 태양을 움켜쥐려는 듯 보이는 그 형상은 땅과 바다에 뿌리를 내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단호함과 강렬함을 내뿜는다. 새해 첫날. 그 어느 바다에서보다, 강렬하고 결연할 일출의 명장면을 눈에 담아보면 어떨까.



다른 그림 찾으며 경북도의회 자세히 보기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곳)을 찾아서 사진을 찍어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주세요.
12월 31일까지 참여해주신 분 중 10분을 추첨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 문자, 카카오톡 참여_ 010.8565.6842

※ 기프트콘 발송을 위해 이름과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가을호 독자참여 당첨자

강기*(1817)	임혜*(9226)
김상*(5419)	전정*(0764)
김영*(9432)	정현*(6734)
박성*(5067)	피재*(9070)
서유*(1275)	



[안동 태사묘]

의정안내

• 본회의 방청

-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유선상으로 방청신청 후 방청인원 안에서 방청가능
T. 054-880-5125
- 상세안내 의회 홈페이지 방청안내 참조
(council.gb.go.kr/cms/tour)

• 의회견학

- 도내 학생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초·중고·대학생에게 의회견학 안내 / 견학신청은 유선상으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로 견학일 7일 전까지 신청
T. 054-880-5126

• 의회 소식지 신청

- 경북도의회 홈페이지 접속 후 의회소식지 신청
홈페이지 - 구독신청(council.gb.go.kr)
※ 구독 취소 시 경북도의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로 연락(054-880-5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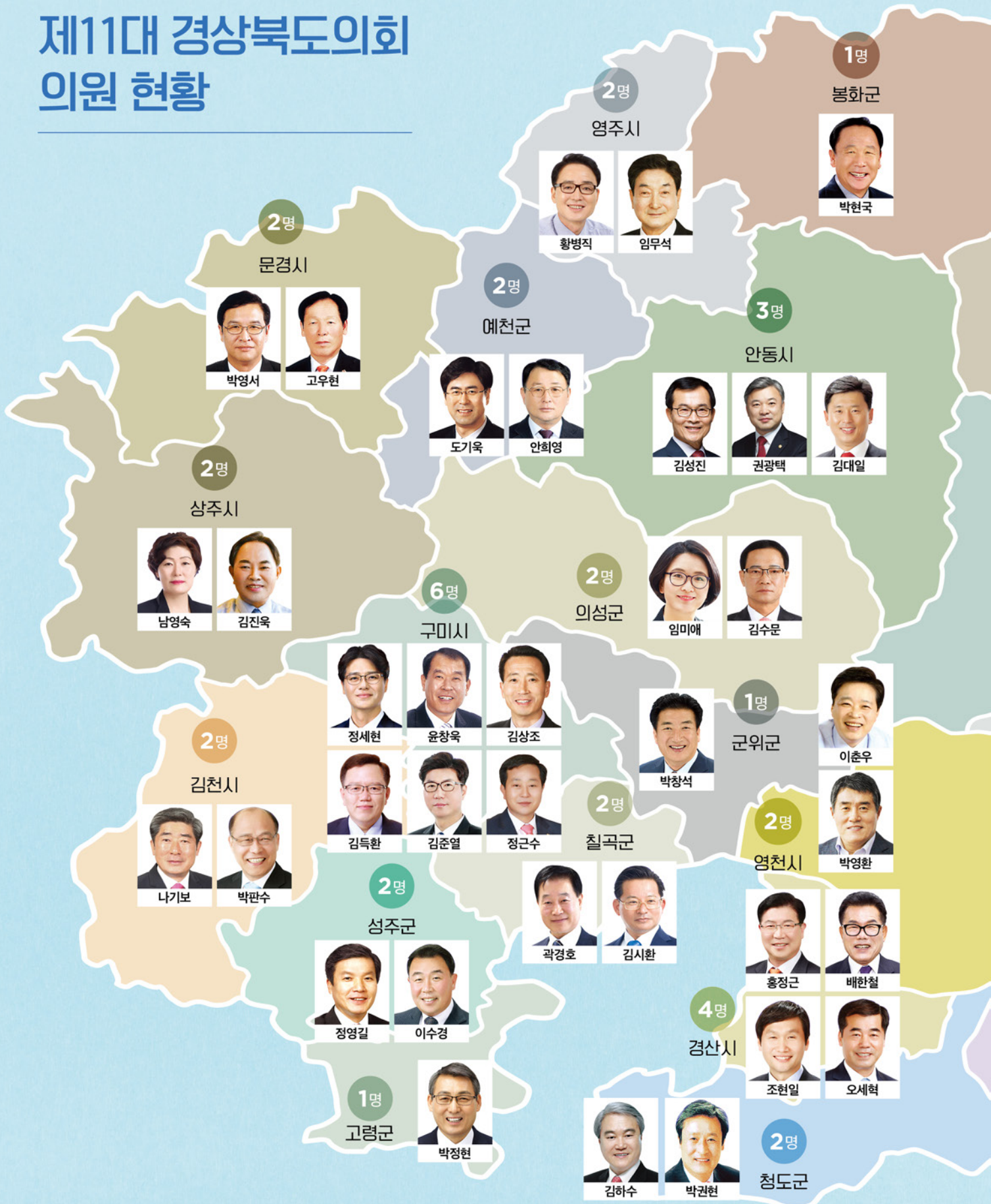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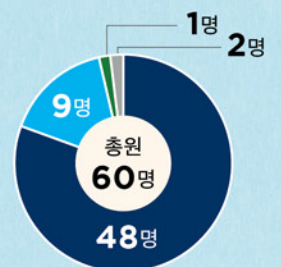
• SNS 의회 알림

- 페이스북
경북도의회(www.facebook.com/gbcouncil)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현황







경상북도의회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Tel. 054-880-5126 Fax. 054-880-5129
<http://council.gb.go.kr/>